

■ 분석

99년 3/4분기 광고비 - 1조 2,086억원, 전년동기 대비 43.5% 성장

올해 3/4분기 4대매체 광고비는 1조 2,086억원으로 지난 2/4분기에 비해 1.7%가 증가하였고, 전년동기에 비해서는 43.5%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어 연초부터 이어져온 회복기조가 계속되고 있음을 증명했다.

매체별로 살펴보면 3/4분기 전파매체 광고비는 4,392억원으로 98년 3/4분기의 2,598억원에 비해 69.1%라는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고, 인쇄매체 광고비는 7,694억원으로 전년동기의 5,825억원에 비해 32.1% 증가되었다.

구체적으로 텔레비전 광고비가 70.7%, 라디오 광고비가 54.1%, 신문 광고비가 31.8%, 잡지 광고비가 36.4% 증가된 것을 볼 수 있다. 3/4분기 4대매체 광고비 실적을 IMF 체제 이후 최고 기록을 나타내었던 지난 99년 2/4분기 실적과 비교해 보아도 전체적으로는 1.7% 증가되었다.

SK텔레콤 1위, 현대증권 1,045% 증가

광고주별로는 SK텔레콤이 전분기 대비 63.5%가 증가한 269억원으로 삼성전자를 제치고 1위 광고주의 자리에 올라선 가운데, 삼성전자가 전분기 대비 4.7%증가한 259억원으로 2위를, 남양유업이 1.3% 감소한 149억원으로 3위를 차지했다.

바이 코리아 상품으로 공격적인 광고 공세를 펼쳐온 현대증권은 전년동기 대비 무려 1,045.5%가 증가(전분기 대비 11.2% 감소)한 123억여원을 지출함으로써 올 들어 10대 광고주 자리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<표1 참조>

<표1> 10대 광고주 광고비 현황

순위	회사명	99 3/4분기	증감률		99 2/4분기	98 3/4분기
			전분기대비	전년동기대비		
1	SK텔레콤	26,939,983	63.5	76.5	16,477,622	15,259,314
2	삼성전자	25,901,588	4.7	137.1	24,735,454	10,923,150
3	남양유업	14,866,207	-1.3	64.4	15,055,760	9,044,669
4	LG화학	14,854,691	9.6	85.7	13,548,675	8,001,358
5	대우자동차	14,046,416	14.5	-9.4	12,266,960	15,507,514
6	한국통신	13,826,465	120.1	287.4	6,291,939	3,568,909
7	기아자동차	12,373,149	-35.1	95.4	19,053,029	6,332,090
8	현대증권	12,310,896	-11.2	1,045.5	13,861,119	1,074,125
9	대일유업	12,297,721	10.9	172.0	11,093,172	4,521,360
10	LG텔레콤	11,820,568	14.9	120.7	10,285,440	5,354,795

방송사별 방송광고비 현황을 보면 한국방송공사가 1,286억 5,100만원의 실적으로 전년동기 대비 77.2% 성장하여 방송3사 가운데 가장 큰 성장률을 나타냈다. 한편 문화방송은 1,743

억 9,900만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50.4%, 서울방송은 923억 1,400만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74.3%의 성장률을 기록하였다. 지역민방의 경우 8개 지역민방 모두가 전년동기 대비 70% 이상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였다.

한편, 종교방송의 실적은 라디오 평균 신탁추이보다 높은 성장률을 보였다. 라디오 평균으로 전년 대비 44.8%의 성장세를 기록한 반면 종교방송은 80%대를 상회하는 성장세를 나타내 방송매체 가운데 가장 뒤늦은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.

10위권 광고회사 회복세 빨라

광고회사의 방송광고 취급액은 총 4,372억 5,800만원으로 98년 3/4분기 대비 66.7% 증가하였으며, 광고회사 대행률은 전년동기의 99.4%보다 소폭 상승한 99.8%로 나타났다. 여전히 1위를 기록한 제일기획은 99년 3/4분기 동안 577억 6,100만원의 매출실적을 기록하여 98년 3/4분기의 404억 5,800만원보다 42.8%의 성장을 거두었다.

10위권 광고회사들은 대체적으로 전년동기 대비 상승세를 큰 폭으로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 10위권 광고회사의 전년동기 대비 실적성장률이 83.7%로 전체성장률 66.7%를 상회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중하위권 광고회사들보다 10위권 내의 광고회사가 빠른 속도의 회복세를 보였다.

10위권 광고회사 가운데 코래드는 해태그룹의 광고재개와 대우그룹의 광고대행을 통해 전년대비 289.9%의 실적성장을 보이며 신탁순위 14위에서 5위로 상승했으며, TBWA코리아 역시 SK텔레콤의 광고를 대행하면서 전년동기 대비 14,053.2%의 실적상승을 보이고 있다. 상위 10대 광고회사 취급액은 2,820억 4,100만원으로 전체 광고회사 방송광고 취급액의 64.5%를 점유하였으며, 20대 광고회사(3,635억 5,300만원)가 83.1%를 50대 광고회사(4,183억 3,100만원)가 95.7%를 각각 점유한 것으로 집계되었다.

* 이 글은 99년 3/4분기 광고계동향 분석 보고서를 요약, 수록한 것입니다.